



차이나

CHINA Market Watch

마켓 워치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2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상반기 서비스 무역액 전년 동기대비 8.5% 증가

-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비스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8.5% 증가한 3조 1,358억 위안(한화 약 569조 원)이며, 이 중 수출은 5.9% 감소한 1조 3,232억 위안(약 240조 원), 수입은 22.1% 증가한 1조 8,126억 위안(약 329조 원)임
- 지식집약형 서비스무역 비중이 상승세로 1~6월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입은 12.3% 증가한 1조 3,639억 위안(약 248조 원), 전체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.5%로 전년 동기대비 1.5%p 상승함. 이 중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은 16% 증가한 7,923억 위안(약 144조 원), 수입은 7.5% 증가한 5,716억 위안(약 104조 원)임
- 관광서비스 수출입은 65.4% 증가한 6,509억 위안(약 118조 원)으로 서비스무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임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3-08/04/content_26009314.htm

2 中, 철강산업 상반기 실적 부진...하반기 수익성 개선 전망

- 동팡차이푸(东方财富) Choice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24개 철강 상장업체가 상반기 실적 예고를 발표했으며, 이 중 15개 기업이 손실을 기록하고 최대 손실은 100억 위안(약 1조 8,154억 원)에 달할 전망
- 모 철강 상장업체 관계자는 상반기 철강산업의 다운스트림 수요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과 동시에 철강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기업 이윤이 감소했다고 밝힘
- 중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철강재가격지수(CSPI)의 평균치는 113.21포인트로 전년 동기대비 15.4% 하락했고 란거철강(兰格钢铁)에 따르면 상반기 란거철강 종합강재가격지수 평균치는 전년 동기대비 16.3% 하락한 톤당 4,335위안(약 78만 원)으로 나타남

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철금속 제련과 압연 가공업 종사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9.6% 감소한 4조 490억 위안(약 735조 원), 이윤 총액은 97.6% 감소한 18.7억 위안(약 3,395억 원)에 불과했음
- 귀타이쥘안(国泰君安) 증권사의 철강 부문 수석애널리스트 리펑페이(李鹏飞)는 8월 중하순 부터 고온, 강우 등의 영향이 악화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9월에는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재고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업계 이윤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
- 한편 중국공업정보화부는 7월 19일자로 자동차, 전자, 철강 등 10개 중점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할 계획을 밝혔음

자료원 : 증권일보망

<http://www.zqrb.cn/finance/hangyedongtai/2023-07-31/A1690731439390.html>

3 中 리튬 배터리 업체, 헝가리 등 해외 진출 가속화

- 한국 시장조사기관 SNE Research 발표에 따르면 올해 1~5월 글로벌 동력 배터리 탑재량 10대 기업 중 중국 업체 6개사가 선정됨

| 2023년 1~5월 글로벌 차량용 배터리 탑재량 (단위 : GWh, %)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순위 | 업체명 | 2023년 1~5월 | 2022년 1~5월 | 2023년 시장점유율 |
| 1 | CATL(宁德时代) | 86.2 | 54.0 | 36.3 |
| 2 | BYD(比亚迪) | 38.1 | 18.4 | 16.1 |
| 3 | LG 에너지솔루션 | 33.0 | 21.2 | 13.9 |
| 4 | 파나소닉(Panasonic) | 19.1 | 13.9 | 8.0 |
| 5 | SK on | 12.4 | 11.4 | 5.2 |
| 6 | CALB(中创新航) | 10.2 | 6.5 | 4.3 |
| 7 | 삼성 SDI | 9.9 | 7.7 | 4.2 |
| 8 | Gotion Technology(国轩高科) | 5.3 | 4.1 | 2.2 |
| 9 | EVE(亿纬锂能) | 5.1 | 2.1 | 2.2 |
| 10 | SUNWODA(欣旺达) | 3.8 | 2.5 | 1.6 |
| - | 기타 | 14.5 | 14.4 | 6.1 |
| | 합계 | 237.6 | 156.0 | 100 |

- 해외시장에서 CATL(宁德时代) 배터리 탑재량 30.5GWh로 시장점유율 27.3%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고 BYD 배터리 탑재량은 1.7GWh로 전년 동기대비 540.5% 증가하여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
- 해외진출 면에서 중국 기업들은 헝가리를 선호하는 추세임 △2022년 8월 CATL가 500억 위안(약 9조 원)을 투자하여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△2023년 6월 EVE

가 100억 위안(약 1.8조 원) 투자하여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△2023년 7월 SUNWODA가 20억 위안(약 3,638억 원)을 투자하여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△BYD도 2억 위안(약 364억 원)을 투자하여 헝가리에 배터리 조립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전해짐

- CATL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헝가리 공장을 선호하는 원인을 헝가리는 자동차 제조 역사가 유구하여 산업망이 잘 구축되고 유럽의 중심으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, 완성차 기업이 대거 집결되고 투자환경이 양호하며, 교통과 물류가 편리한데 있다고 분석함
- 2022년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전년 대비 86.7% 증가한 3,427억 위안(약 62조 원)이며, 올해 1분기 수출액도 94.3% 증가한 1,098억 위안(약 20조 원)임. 한편 상반기 차량용 배터리 수출은 56.7GWh로 전체 생산량의 약 19.3%를 차지함

자료원 : 21세계경제보도

<https://www.21jingji.com/article/20230731/herald/9db7539932ea261bdf59962bffe362dc.html>

4 中, 2023 월드 로봇 콘퍼런스 8월 16일 개막 예정

- 베이징시 정부, 공업정보화부, 과학기술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'2023년 월드 로봇 콘퍼런스(World Robot Conference)'가 8월 16일 베이징에서 개막할 예정임
- 이번 콘퍼런스는 '개방 혁신, 미래 공유'를 주제로 포럼, 전시회 등이 포함되며 전시면적은 4.5만 평방미터로 전년 대비 5,000평방미터 증가했으며, 국내외 로봇 149개사가 참가하여 600건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임
- 국제로봇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53만 대이며, 이 중 중국 기업의 설치 대수가 전체의 50% 이상으로 9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함
- 2022년 중국의 로봇산업 매출은 1,700억 위안(약 31조 원)을 돌파했고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44만 대,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646만 대에 달함. 올해 상반기 로봇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로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5.4% 증가한 22만 대,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9.6% 증가한 353만 대임

자료원 : 증권시보망

<http://www.stcn.com/article/detail/937604.html>

5 中, 폭스바겐과 샤오핑(Xpeng) 기술 협약 체결

- 최근 폭스바겐과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샤오핑(Xpeng)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양사는 중형차 시장을 겨냥하여 전기차 모델 2종을 공동 개발한 후 폭스바겐 브랜드로 2026년 출시한다고 발표함
- 전략적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샤오핑의 G9 모델 플랫폼과 디지털 콕핏(디지털 자동차 운전석),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전기차 플랫폼, 소프트웨어 기술,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예정
- 협력의 일환으로 폭스바겐은 7억 달러를 투자하여 샤오핑의 지분 4.99%를 인수하는데 거래가 완료되면 폭스바겐은 샤오핑의 3대 주주로 부상할 전망
-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순수전기차 인도량은 48% 증가한 32만 대로 전체 자동차 인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5.6%에서 올해 7.4%로 상승했으나 중국시장에서의 인도량은 2% 감소한 6만 대로 나타남

자료원 : 중국매일경제신문망

<https://www.nbd.com.cn/articles/2023-07-27/2935235.html>

6 中, 친환경·스마트 제품 주문 증가세

- 최근 소비촉진 정책과 소비 업그레이드로 친환경·스마트 가전제품과 신에너지차 등의 수요가 빠른 성장세임
- 베이징시, 광시성, 광둥성, 장시성 등 지역의 지방정부는 가전 브랜드, 전자상거래 플랫폼, 가전 경소상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가전제품 구입시 보조금 제공, 무료 배송 등의 조치로 가전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
- 올해 상반기 냉장고, 의류건조기, 주방용 가전 등의 판매량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. 또한 정부의 신에너지차 하향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의 신에너지차 구매 혜택이 늘어났으며, 우링홍광(五菱宏光) MINI EV를 구매시 최대 1.7만 위안(한화 약 308만 원), 우링칭쿵(五菱晴空) AIR 또는 우링(五菱) NANO 등 모델을 구매시 5,000~1만 위안(약 91~182만 원) 이하의 보조금을 제공해 주고 있음

자료원 : 경제참고망

http://www.ijckb.cn/2023-08/07/c_1310735776.htm

7 루이싱(瑞幸) 커피, 스타벅스 제치고 2분기 매출 1위 등극

- 루이싱(瑞幸) 커피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88% 증가한 62억 위안(한화 약 1조 원)으로 스타벅스를 제치고 매출 1위를 달성했으며, 순이익은 10억 위안(약 1,803억 원)으로 집계됨
- 루이싱 커피의 점포수는 총 1만 836개이며, 이 중 자영 점포가 66%를 차지했고 스타벅스는 중국내 250개 도시에 6,48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커피 분야 종사기업은 18만 개사, 커피시장은 25~35%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 중으로 2025년 시장규모가 1조 위안(약 182조 원)을 돌파할 전망이다

자료원 : 베이징일보망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3259542801764357&wfr=spider&for=pc>

8 中, 상반기 요식업 매출 21.4% 증가한 2.4조 위안 달성

-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요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1.4% 증가한 2조 4,329억 위안(한화 약 443조 원)으로 2019년 동기를 상회했으며, 요식업 매출이 소매판매액의 10%를 차지하며 소비가 빠르게 회복된 분야로 떠올랐음
- 기업정보 플랫폼 텐엔차(天眼查)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요식업체는 전년 동기대비 23.4% 증가한 168만 개사이며, 베이징시 기업은 63% 증가한 7,610개사에 달했음
- 요식업체들은 서비스 수준 제고, 신품 출시, 업종간 융합을 통한 다양한 소비체험 제공으로 소비자를 끌고 있음
 - 페이제라오훤궈(珮姐老火锅)는 분기별 3~5개의 신메뉴를 출시하고 스타벅스, 하이디라오(海底捞) 등은 배달어플 메이똠(美团) 라이브방송을 통해 신품을 선보이고 있으며, 'Z세대' 소비 수요에 부응하는 '훤궈+디저트', '샤오카오(烧烤)+밀크티', '서점+커피' 등의 서비스도 출시됨. 올해 상반기 피자헛(必胜客)은 게임을 접목한 테마식당인 '원신(原神) 테마 식당' 200개를 오픈했음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www.ce.cn/cysc/sp/info/202308/08/t20230808_38663405.shtml